“정조 효심 용주사 천보루, 현대적 계승을”

3월 10일 보물 지정 기념 고유제 · 학술세미나

류성룡 · 김관수 등 주제 발제
변천사 살피며 활용방안 모색
성효 스님 “수행 공간으로 보존”

화성 용주사=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가 지난 2월 천보루가 보물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기리는 법석을 열었다.

용주사는 3월 10일 고유제(告由祭)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조 대왕의 효심이 담긴 성보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역사 자원으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 앞서 대웅전 앞마당에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으로부터 보물 지정서를 전달받아 부처님 전에 봉정하는 고유제가 봉행됐다. 성효 스님은 “천보루의 보물 지정은 정조 대왕의 지극한 효심이 현대에도 살아 숨 쉬는 유산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 경사를 부처님께 고함으로써 도량의 법향을 더욱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학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천보루 보물 지정 기념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시민과 불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실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성효 스님은 ‘용주사의 천년 미래를 열다-천보루의 보물 지정과 기능적 계승, 그리고 도량의 완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천보루의 보물 지정은 용주사의 역사적 전통과 신앙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이 성보가 앞으로도 수행과 성찰의 공간으로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성룡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조선의 18세기 건축과 정조 시대 용주사’를, 김관수 여유당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왕실 원찰 용주사의 창건기 공간 구성과 역사적 변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조선 18세기 사찰 건축의 정수로 평가받는 천보루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며 왕실 원찰로서 용주사가 지닌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건축·미술·문화유산 보존 분야 전문가 9명이 참여해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선혜 교수(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리진흥부장·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주수완 교수(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조성금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겸임교원) △김학범 교수(한경국립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 △현승욱 교수(강원대학교 건축학과) △이재연(화성특례시 학예연구사) △구본능 소장(단청기술연구소) △정성권 교수(단국대학교 초빙교수·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전문위원) △박기화 위원(서울시 한양도성자문위원회)이 참여해 천보루의 원형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3월 10일 천보루 보물 지정을 기념하는 고유제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유제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주지 성효스님에게 천보루 보물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세미나에 앞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천보루의 보물 지정은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형 그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26일 ‘화성 용주사 천보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화성 용주사 천보루’는 대웅전의 중심축에 위치하는 건물로,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현 서울 동대문구)에서 수원 화산의 현륭원(顯隆園)으로 옮기고 명복을 기리기 위해 그 능침사찰로 용주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1790년(정조 4년) 건립됐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서울 나들이

3월 11일 이운법회 봉행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시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창 선운사 성보문화재가 대중을 만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3월 11일 지장보궁에서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시를 위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이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전통 불교 의례에 따라 시련, 향화청, 헌좌진언, 다게, 고불문, 반야심경, 행보게, 법성게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부대중은 장엄한 의식 속에서 지장보살상이 안전하게 이운되기를 일심으로 염원했다.

주지 경우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찬탄하며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스님은 “선운사 도량을 수호하며 중생의 발원과 기도를 받아 주신 지장보살님이 뜻깊은 인연으로 잠시 도량을 떠나 박물관에서 전국의 많은 대중과 친견하게 됐다”며 “지장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널리 퍼져 보는 이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 이운과 전시의 모든 과정이 장애 없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지심으로 발원한다”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가 3월 11일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을 위한 금동지장보살좌상 이운법요식을 봉행했다.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은 “천년 고찰 선운사의 성보가 서울 나들이를 통해 대중과 만난다는 사실에 사부대중의 자부심이 크다” 며 “지장보살님의 지혜가 전시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삶의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운된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오랜 세월 고통받는 중생에게 희망을 전해 온 선운사의 핵심 성보다. 보살상은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특별전시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은 4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가제)’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선운사 지장보살 좌상,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상, 도솔암 금동지장보살 좌상을 비롯해 석씨원류, 선운사 사적기, 선운사 대웅보전 신중도 등 다양한 성보가 선보일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홍매화 첫 개화…봄 소식 알리다

‘화엄매’ 3월 6일 꽃망울
3월 20~30일 만개 예상



지리산 자락에 봄을 알리는 홍매화가 올해 첫 꽃망울을 터뜨렸다.〈사진〉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국가유산 천연기념물인 ‘구례 화엄사 화엄매’가 3월 6일 오후 2시 무렵 첫 꽃을 피우며 본격적인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해발 약 450m에 자리한 화엄사 홍매화는 매년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매화 명소로 꼽힌다.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홍매화 첫 개화 시기는 2021년 2월 25일, 2022년 3월 13일, 2023년 3월 7일, 2024년 3월 9일, 2025년 3월 21일이다. 올해 개화일은 3월 6일로 지난해보다 16일 빠르다.

홍보기획위원회는 “홍매화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해 3월 20일부터 30일 사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화엄사는 홍매화 개화 기간 동안 제6회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홍매화 빵 판매와 소원지 달기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수익금은 구례 지역 자활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개화 상황은 화엄사 홈페이지 라이브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지 우석 스님은 “홍매화의 첫 꽃망울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메시지”라며 “많은 국민들이 구례 화엄사를 찾아 홍매화의 아름다움 속에서 힐링하며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제관음선센터 건립 천일기도 회향

무상사, 3월 7일 경내서
선방, 요사채 조성 예정



계룡산 무상사(주지 탄월 스님)가 3월 7일 국제관음선센터 건립을 발원하며 이어 온 천일기도를 회향했다.〈사진〉

숭산국제선원 무상사는 관음선종의 아시아 본찰로, 26년 전 숭산 선사의 가르침을 잇기 위해 설립됐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수행자들이 이곳을 찾아 참선 수행에 동참해 왔다.

이번 천일기도는 국제관음선센터 건립을 발원하며 시작됐다. 센터는 안거 수행자와 방문자, 단기 체류자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중 운영과 수행을 병행하는 상주 스님에 대한 지원과 무상사 설립과 수행 지도에 헌신해 온 조실 스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의미도 담겼다. 센터는 대웅전과 선방 뒤편 약 1만3000㎡ 부지에 연면적 1480㎡ 규모로 조성돼 선방과 숙소, 공양간, 조실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회향 법석에서 주지 탄월 스님은 “무상사는 세계 수행자들이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도록 세워진 도량”이라며 “시설 확충을 위해 시작한 천일기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수행에 인연을 맺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도를 원만하게 회향하고 전 세계에서 참선 수행을 위해 온 이들과 서로 방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탄월 스님은 “세계 불자들이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어 자성을 찾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신년하례법회

3월 10일, 인천 보명사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회장 성철 스님, 이하 한불련)는 3월 10일 인천 보명사 대법당에서 ‘2026 병오년 종단 대표자 연석회의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회장 성철 스님을 비롯해 지부법인관리위원장 무공 스님, 종책원장 인경 스님, 최고위원 정오 스님을 비롯해 종단 대표자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장 성철 스님은 법문에서 “병오년은 모두가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 간 화합과 화쟁을 통해 함께 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이루어 가자”고 당부했다.

전국지부법인관리위원장 무공 스님은 신년 인사에서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는 가르침처럼 신심불이(信心不二)의 지혜로 늘 깨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감사장 수여도 이어졌다. 소년·소녀가장 돕기와 장애인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활동을 이어 온 임병희(보륜) 불자가 감사장을 받았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1029일 정진 회향·입재

3월 8일, 극락보전 앞마당서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 스님)은 3월 8일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제8차 1029 합동천도재’ 회향식과 ‘제9차 1029 지장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2023년 5월 21일부터 1029일 동안 이어 온 정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수행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솔암은 회향의 의미를 담아 장학금 300만원과 백미 20kg 41포를 광주자비신행회에 전달했다.

감원 성본 스님은 “지난 3년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년은 깨끗해진 마음밭에 지혜와 복덕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며 “지장보살의 대원이 끝이 없듯 우리의 정진 또한 멈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각원사, 25기 불교대학 입학식

3월 8일, 173명 입학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학장 대원 스님)이 3월 8일 대웅보전에서 제25기 불교 기본교리 강좌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25기에는 주간 83명, 야간 90명 등 총 173명이 등록해 3개월 기본교육 과정을 시작했다.

학장 대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전에는 서로 몰랐던 분들이 인연에 의해 만났다”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연기법을 생각하면 이 만남이 바로 불도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삶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이후 과정에서도 삶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안동 대원불교대학 제29기 입학식

3월 7일, 77명 입학



안동 대원불교대학(학장 도륜 스님)이 77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대원불교대학은 3월 7일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학장 도륜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문을 두드리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수행자”라며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 되길 바란다”고 입학을 축하했다.

77명의 신입생들은 앞으로 1년 2학기 과정 동안 불교 기본 예절과 교리, 불교 사상과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신행 생활을 이어 갈 예정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대성사 대구 금강불교대학 입학식

3월 6일, 100여 명 입학



대구 대성사(주지 월도 스님)가 3월 6일 서원전에서 ‘대구 금강불교대학 2026년도 제17기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입학식은 1973년 상원각대조사의 금강학원 설립 유지를 받들어, 1983년 서울 성룡사에서의 첫 개교 이래 이어져 온 천태종 교육의 전통을 대구 지역에서 계승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장 월도 스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만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라며 “마음의 청정함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서 지혜를 구원하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